

### 3. 청동기시대

청동기시대는 광물자원인 구리와 주석 등을 합금하여 청동기를 만들었던 시대로, 이때부터 자연을 극복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기에 청동기를 제작·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무늬토기(무문토기)·붉은간토기(홍도) 등 다양한 토기 사용, 석검·석도 등 간석기의 보편적 사용, 지석묘·석관묘 등의 정형화된 묘제, 농경의 보편화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동기문화는 성채도시의 발생, 지배계급의 형성, 분업·교역의 발전, 동물이나 쟁기를 사용한 농경, 그리고 문자의 발명 등 사회·경제·문화 여러 측면에서 시대의 특징을 구비하는 문화로 파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동기문화는 청동기의 형태나 문양으로 볼 때 타카르·오르도스 청동기문화와 연결되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요령지역의 청동기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요령지역의 청동기문화가 기원전 1,000년 이상 올라가고 있어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개시연대를 대체로 기원전 1,000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동기시대는 전기(기원전 1,000~300년)와 후기(기원전 300~0년)로 구분하고 있다. 후기는 청동기와 함께 철제품도 나타나고 있어 초기철기시대라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청동기는 신분의 상징물로 소수의 유력한 사람들만이 소유한 유물이고, 주민들은 토기·석기·목기 등을 실생활용구로 계속 사용하였다.

전기에는 비파형동검을 비롯한 청동도끼, 청동촉, 청동손칼, 청동끝, 청동단추, 거친무늬거울(粗文鏡) 등의 청동기가 사용되었다. 무문토기, 가지문토기, 붉은간토기 등 토기와 석검, 석촉, 턱자귀, 홈자귀, 돌칼 등의 석기류와 함께 목걸이나 귀걸이 장식인 굽은옥(曲玉), 대롱옥(管玉)도 사용되었던 시기이다. 무덤은 지석묘, 석관묘, 소형 옹관묘가 있다.

후기에는 한국식동검, 청동격창(銅戈), 청동창(銅鉞), 잔무늬거울(細文鏡), 손에 쥐고 흔드는 청동방울(鈴附形銅器), 말방울(馬鐸), 동물형 허리띠장식 등의 청동기가 사용되었다. 철제품으로는 창, 도끼, 끝 등의 무기 이외에 괭이, 낫, 반달칼 등의 농기구가 있으며 토기는 아가리띠토기(점토대토기), 흑색간토기(흑도)가 있다. 무덤으로는 적석목관묘, 토광목곽묘, 옹관묘가 사용되었다.

전남지역의 청동기문화는 크게 전기의 비파형동검(요령식동검)문화와 후기의 세형동검(한국식동검)문화로 뚜렷이 구분된다. 영산강 유역에서는 세형동검문화가, 보성강 유역과 남해안 지역에서는 비파형동검문화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 두 문화는 시기적으로 선후관계가 있고 지형적으로도 뚜렷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과제 중 하나이다. 이러한 청동기문화 양상을 띠고 있는 두 지역의 공통적인 문화요소는 지석묘라 할 수 있다.

전기를 대표하는 비파형동검문화는 고흥 운대리, 송광면 우산리, 보성 덕치리, 여천시 봉계동·적량동·평여동, 여수 오림동 등의 지석묘에서 발견되었는데 18점의 비파형동검과 동모, 동촉이 출토되어 전남 동남부지역이 우리나라 최대의 출토지가 되었다. 이 유적 중 여천시 적량동 지석묘에서는 비파형동검 7점과 동모 1점이 발견되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초기 청동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동검의 출토로 보아 우리나라 초기청동기문화는 전남 남해안 동부지역과 보성강 유역에서 성행했지만 여수반도 일대가 그 중심지임이 밝혀졌다. 이제까지 조사된 것으로 보면 보성강 유역의 비파형동검문화는 지석묘와 함께 보성만에서 보성군 득량 오도치(五道峙)를 통해 보성강 상류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지석묘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발전한 것이다. 또 이 문화는 중국 요령지역 청동기문화와 관계

되는 유물이어서 해로를 통한 두 지역간의 교류를 상정할 수 있다.

후기를 대표하는 세형동검문화의 유적지로는, 세형동검을 비롯한 세문경·동과·동모·방울류 등이 일괄출토된 화순 대곡리와 함평 초포리가 대표적이다. 화순 대곡리에서는 세형동검, 세문경, 동부, 팔두령, 쌍두령, 동제삭구 등 11점이 수습되었다. 함평 초포리에서는 세형동검, 동과, 동모, 중국식동모, 동부, 동사, 동착, 세문경, 간두령, 쌍두령, 병부동령과 곡옥 2점, 지석 2점 등 26점이 출토되었으며 이 두 유적은 적석목관묘 계통이다. 샤먼의 무구(巫具)인 동령구(銅鈴具)와 상당한 권력의 상징인 무기류를 보아 무덤의 피장자는 의기와 무기를 바탕으로 주민에게 강제력을 구사하는 지배계급의 최고권력자이면서 제정(祭政)을 관장하는 신분의 소유자로 짐작된다.

이외에 영산강 세형동검문화를 대변해줄 수 있는 청동용범이 월출산 근처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청동기를 직접 대량으로 제작·생산하였음을 보여주는 유물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사실은 영산강 유역에 찬란한 세형동검문화가 형성되었음을 뒷받침해주고 있지만, 발견된 유적은 몇 사례가 안 된다. 앞으로 많은 유적이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우리나라의 세형동검문화는 충남 금강 유역이 그 중심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나 영산강 유역도 그에 못지 않은 문화를 형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동기시대의 유적은 지석묘, 주거지, 석관묘 등이 있다. 이 시대의 유적들 중 지석묘는 전남의 전 지역에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석관묘는 영산강 유역에, 그리고 주거지는 영산강·보성강 유역에서 조사되었다.